

코로나시대 기독교법사상의 의미: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중심으로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I. 서론

코로나사태에 대응하여 교회에게 내려졌던 집합금지명령은 여러 가지 논쟁을 낳았다. 예배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부 교회의 입장이 나타나기도 하였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예방법」이라는 ‘법률’의 집행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세속법(인정법)의 기능과 한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독교역사에서 세속법의 기능과 한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견해 중의 하나로 중세의 아퀴나스(Aquinas)에 의해서 집대성되고 오늘날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연법’(natural law) 사상을 들 수 있다.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은 인간의 실천이성을 긍정하고 이를 토대로 자연법을 근거지운다. 이러한 자연법은 인간이 신적인 질서(영구법)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자연법은 인정법과 일정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해한다.(Summa I-II, Q.90-108; 이진남 2010; 강상진 2014) 법철학의 역사는 이러한 자연법사상과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 간의 대결과 극복의 역사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은정 2017)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연법에 대한 논의를 보면 한 가지 공백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바로 종교개혁가인 칼뱅(Calvin)이 자연법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칼뱅의 신학사상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지만, 칼뱅의 ‘자연법사상’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¹⁾ 자연법사상에 대해서 국내의 법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칼뱅’의 자연법사상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²⁾ 이는 칼뱅의 자연법사상이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

1) 신학분야에서는 이은선(1993), 김철영(1999), 권호덕(2003), 김재성(2004), 문병호(2005), 김희권(2008), 우병훈(2019) 등을 관련된 연구로 볼 수 있는데, 이들 선행연구들 및 여기에서 인용된 광범위한 외국문헌들은 이번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나침반을 제공해주었다. 이 글에서는 법학적인 연구를 통해 기존의 신학적인 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2) 법학분야에서는 지승원(1990), 진웅희(1993), 홍기원(2007), 김두식(2007), 김철(2009), 김대인(2009), 김정우(2010),

고 있고(DeBoer 2008: 652), 이러한 이유로 신학과 법학 분야 모두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의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³⁾

이 글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참조하면서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한다. 첫째, 칼뱅의 자연법사상의 핵심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하스(Haas, 1997)는 칼뱅의 자연법사상의 핵심을 ‘형평’으로 이해하고 이를 깊이 있게 분석한 바 있다. 형평개념은 오늘날 세속법질서에서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평개념은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오늘날 세속법질서간의 다리를 잇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양심’도 칼뱅의 자연법사상의 핵심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핵심개념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둘째, 칼뱅의 인간론과 자연법사상간의 관계이다. 칼뱅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칼뱅의 인간론과 자연법사상과 모순충돌되는 면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칼뱅의 자연법사상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검토의 가치가 있다.

셋째,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 개신교신학에서는 자연법을 희랍적인 개념 또는 가톨릭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배척하려는 경향이 존재하는데,⁴⁾ 개신교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칼뱅 자신은 자연법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칼뱅의 자연법사상의 독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자연법사상을 완성한 아퀴나스의 사상과 칼뱅의 사상간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우선 칼뱅의 생애와 저서 중 법학적인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망하고(II),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개관하고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한 다음(III),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검토하도록 한다(IV). 이어서 칼뱅의 자연법사상이 오늘날 세속법질서에 주는 함의를 검토하고(V), 마지막으로 일정한 결론을 제시하도록 한다(VI).

II. 법의 맥락에서 본 칼뱅의 생애와 저서

칼뱅은 1508년 프랑스의 노용(Noyon)에서 태어났다. 칼뱅의 아버지는 칼뱅을 어려서부터 성직자로 키우려 했고, 그래서 칼뱅이 열두 살 때 성직록을 받게 했다. 그러나 칼

신치재(2011), 김상용(2012), 이국운(2016), 송시섭(2019) 등에서 개신교 법사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이들 선행연구들은 이번 연구의 소중한 출발점이 되었다. 다만 이들 연구들에서는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이를 이 글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3)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주요 선행연구들을 연도순으로 일람해보더라도 칼뱅의 법사상에 대한 연구(Bohatec 1934), 칼뱅의 법개념에 대한 연구(Hesseling 1992), 칼뱅의 형평개념에 대한 연구(Haas 1997), 개혁주의윤리에서의 자연법연구(Grabill 2006), 칼뱅의 권리사상에 대한 연구(Witte 2007), 두 왕국이론과 자연법사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VanDrunen 2010) 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4) 자연법사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현대신학자로 바르트(Karl Barth), 벨카우어(Gerrit Cornelis Berkouwer),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반틸(Cornelius Van Til) 등을 들 수 있다.(Grabill 2004: 302)

뱅이 파리의 몽테귀(Montaigu) 대학에서 문학석사를 마쳤을 때, 칼뱅의 아버지는 칼뱅에게 법학을 하라고 명령했다.⁵⁾ 칼뱅은 이러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오를레앙(Orleans) 대학에 가서 법학공부를 했다. 오를레앙 대학교는 당시에 법학으로 유명했다. 파리대학교가 오를레앙이 신학교수좌를 가져 경쟁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오를레앙은 법학에 전력하게 되었고, 그 결과 8명의 법학박사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레스뚜알(Pierre de l'Estoile: 1480-1537)이었다. 이곳에서 칼뱅은 로마법(시민법)과 교회법을 공부하였고, 인문주의도 접하게 되었다. 칼뱅은 1529년에는 유명한 이탈리아출신의 법학자인 알찌아띠(Andrea Alciati: 1492-1550)를 따라 부르쥬(Bourges) 대학으로 옮겨서 법학공부를 이어갔고 1531년에는 법률가 자격도 취득했다. (이양호, 1997: 15-17)

당대의 대법학자였던 레스뚜알과 알찌아띠는 칼뱅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레스뚜알은 로마법 해석에 있어서 보편적인 법적용성과 전체 텍스트의 복합적인 논리구조에 기반하면서 동시에 문자주의를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특정한 단어와 특정한 문장은 명백한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는 전체 텍스트 가운데서 단어와 문장을 세심히 읽음으로 충분히 찾아진다고 보았다. 칼뱅은 율법의 규례와 역사적 배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신약과 구약을 조화롭게 해석하고 구약의 구절들을 기독교론적 관점에서 영적으로 혹은 예표론적으로 해석했는데, 여기에서 레스뚜알의 영향이 발견된다고 분석되고 있다.(문병호, 2005: 325)

다음으로 알찌아띠의 영향도 칼뱅의 신학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지적되고 있다. 기독교강요에서 칼뱅은 율법수여자의 목적에 따른 영적인 해석을 율법해석의 제일원리로서 강조하고 있는데(Institutes 2.8.6), 이는 법률제정자의 뜻을 강조하는 알찌아띠 해석법의 영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칼뱅은 알찌아띠로부터 텍스트에 대한 역사적, 문헌적 해석법과 더불어 각각의 사건에 각각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후기주석학파 학자들의 해석법을 동시에 배웠는데 이는 칼뱅이 후에 제네바 헌법을 제정하고 이를 감독회 재판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병호, 2005: 325)

칼뱅의 아버지가 1531년에 세상을 떠남에 따라 칼뱅은 자기의 원대로 콜레쥬 드 프랑스로 와서 희랍어와 히브리어 공부를 하였고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에 몰두해서 1532년에 이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은 칼뱅이 젊은 날 지니고 있던 인문주의를 집대성한 것인데, 이 책은 칼뱅의 법이해의 기초가 된다. 세네카가 이 논문을 네로 황제를 설득하여 백성들에게 보다 관대하게 대하도록 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처럼, 칼뱅도 프랑수아 1세로 하여금 신교도들에 대하여 융통성 있고 관대한 정책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그는 로마법 학자의 견해에 따라 군주는 시민법 이에 초월하며 그 자신이 살아있는 법이며 법은 곧 생명이므로 독자적인 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형평의 개념을

5) 칼뱅은 시편주석의 서문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내가 아직 매우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는 나를 신학공부를 하도록 예정해 두었다. 그러나 후에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수입이 높은 것을 알고 돌연히 그 목표를 바꾸었다. 그래서 철학공부를 그만두고 법학을 공부하게 되었다.”(이양호, 1997: 15)

활용하여 공권력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하였다.(신치재 2011: 558-559)

칼뱅은 1541년에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활동을 시작하면서 교회법령을 제정하였다. 이 법령에서는 교회의 네 직임으로 목사, 교사, 장로, 집사를 두었고, 장로는 소의회에서 12명을 선출하도록 했으며 이들은 목사들과 함께 당회를 구성했다. 당회에서는 권징의 문제를 취급했는데, 권고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하고, 죄가 무거우면 시당국에 넘겨 처벌하게 했다. 1553년에는 유명한 세르베투스(Michael Servetus, 1511-1553) 사건이 발생했다. 세르베투스는 「기독교회복」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삼위일체론과 유아세례론을 비판하였는데 칼뱅과의 논쟁 끝에 세르베투스의 화형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⁶⁾

칼뱅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신교도들을 보호하고자 1536년에 「기독교강요」를 출판하게 된다. 이후 이 책은 여러 차례 증보를 거쳐 1559년에 최종판이 출판되었다. 칼뱅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활동을 했던 기간(1541년-1564년)과 「기독교강요」의 출판기간이 상당부분 중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강요」는 최종판기준으로 전체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독교강요」에는 칼뱅의 법사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인간의 본성(2권 2장), 율법의 목적(2권 7장), 십계명 해석(2권 8장), 인간법의 제정권(4권 10장), 시민정부(4권 20장) 등에서 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⁷⁾ 또한 칼뱅은 제네바에서 지속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성경의 각 권에 대한 주석서도 광범위하게 발행하였는데, 이 중에서 민수기, 마태복음, 로마서 등의 주석에서 그의 법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기독교강요」 및 성경주석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III. 칼뱅의 자연법사상의 핵심개념

1. 개관

칼뱅의 자연법사상에 대한 연구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그의 전체사상의 맥락에서 볼 때 매우 주변적이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며, 그의 전체 신학사상과 모순되기까지 하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중세의 자연법사상간의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⁸⁾ 다른 하나는 자연법사상이 칼뱅의 법사상 및 정치사상의 핵

6) 이 사건은 칼뱅의 제네바 종교개혁에서 흑역사로 자주 언급된다. 이에 대해서는 종교재판과 화형이 흔하게 이루어졌던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유명한 칼빈주의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 강연」에서 당시 화형으로 순교한 많은 개혁파 신교도들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세르베투스의 화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카이퍼, 2020: 122)

7) 시민정부에 관한 장은 기독교강요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민복복종은 시민정부에 관한 장 안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우병훈 교수는 이처럼 칼뱅이 시민정부에 관한 장을 맨 마지막에 위치시킨 취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즉, 칼뱅은 가톨릭군주의 시선을 피하면서도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 즉,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며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왕의 명령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싶었다는 것이다.(우병훈 2019:189)

8)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바르트(Karl Barth)이다. 그는 브루너(Emile Brunner)와 펼친 자연신학 논쟁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했다.(브루너·바르트: 2021) 그 외에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로 랑(August Lang), 토렌스(James

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중세의 자연법사상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견해이다.⁹⁾(Klempa 1990: 1-5; VanDrunen 2004: 503-504; Grabill 2004: 108-117)

이러한 견해대립의 핵심에는 칼뱅이 강조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다른 한편으로 칼뱅이 말하고 있는 ‘양심에 기반한 자연법’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쟁점이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강요를 비롯한 칼뱅의 저작들에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입장만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두 가지 견해의 중간입장을 취하는 클렘파의 견해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⁰⁾

클렘파를 비롯하여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분석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칼뱅의 자연법사상이 가장 축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강요 4권 20장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다.(Klempa 1990: 5)

“우리가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법은 자연법의 증거에 불과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새긴 양심의 증거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형평의 개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덕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형평만이 모든 법의 목표와 표준과 한계가 되어야 한다. 그 표준에 따라 구성되며 그 목표를 향하며 그 한계를 지키는 법이라면, 그런 법이 유대인들의 법이나 우리의 법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배척할 이유가 없다.”(Institutes 4.20.16)

칼뱅은 법의 단일성과 다양성을 언급하는 맥락에서 위와 같은 서술을 하고 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을 채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모욕하는 주장에 대해서 칼뱅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칼뱅은 신정주의를 배격하며, 형평이라는 자연법의 핵심개념이 준수되는 전제하에서 각 나라와 민족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칼뱅의 위 서술을 보면 하나님의 법(신법), 도덕법, 자연법, 양심, 형평이라는 개념들이 긴밀한 관계 가운데 서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글에는 이들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2. 하나님의 법(신법)

칼뱅의 신학에서 법은 핵심적인 개념에 해당한다. 칼뱅은 법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과 인간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칼뱅은 타락이전의 상태에서도 법이 주어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금지하는 법을 정

Torrance), 헤셀링크(John Hesselink) 등을 들 수 있다.

9) 브루너(Emile Brunner)를 비롯하여 맥닐(John T. McNeil), 멀러(Richard Muller), 슈라이너(Susan Schreiner) 등을 들 수 있다.

10) 클렘파(William Klempa)가 이에 속하여 반드루넨(David VanDrunen)도 이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

한 것¹¹⁾은 인간이 하나님께 속해있다는 점을 명확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바울이 법이 의로운 자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디모데전서 1:9), 칼뱅은 이것이 창세기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바울이 타락이전부터 하나님께 인간에게 법을 주셨다는 점을 부인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Comm. Genesis 2:16-17)

칼뱅은 하나님의 단일하고, 자비로운 의지, 즉 사랑이 계시된 결과로 법이 나왔다고 보았기 때문에 법과 복음간에 본질적인 통일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법과 복음 모두 하나님의 단일한 의지와 말씀으로부터 나왔다고 보았다.(Institutes 1.17.2) 헤셀링크는 이처럼 칼뱅이 법이 하나님의 ‘명시적인 의지’(revealed will)가 계시된 것으로 본 점에서, 법을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hidden will)의 계시로 보면서 복음과의 구분을 강조한 루터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Hesselink 1992: 36)

도예베르트는 이러한 칼뱅의 법이념(law-idea)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형식적으로(formally) 법은 하나님과 피조물간의 보편적인 경계선을 부여하며, 둘째, 실체적으로(materially) 법의 내용은 섭리적·우주적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고, 셋째, 실체적으로 법은 창조주와 피조물간의 지속적인 의존성을 근거지운다는 것이다.(Dooyeweerd 2013: 17)

3. 도덕법

칼뱅은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인식하기 힘들게 됨에 따라 모세를 통해 도덕법을 주셨고 이는 십계명으로 실정화되었다고 보았다. 칼뱅은 아퀴나스와 마찬가지로 모세율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Klempa 1990: 6)

“모세에 발표된 하나님의 율법 전체는 보통 도덕에 관한 율법, 의식에 관한 율법, 재판에 관한 율법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하나씩 고찰해서 거기 있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고 어떤 것이 해당되지 않는가를 깨달아야 한다.”(Institutes 4.20.14)

이처럼 칼뱅은 하나님의 법은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된다고 보았다. 자연법,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실정법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칼뱅은 이러한 형식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있는 의지의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칼뱅은 이 중에도 특히 도덕법을 중시했는데 이는 영구적인 중요성을 가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Hesselink 1992: 18-19) 칼뱅은 도덕적인 율법은 다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았다.

11) 창세기 2:16-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개역개정판, 이하 성경인용은 개역개정판에 따랐다)

“우선 도덕에 관한 율법을 본다면 거기에는 두 부분이 있다. 한 부분은 순수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또 한 부분은 진실한 애정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한다. 따라서 도덕에 관한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을 정돈하고자 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해 주신 의의 표준 곧 참되고 영원한 표준이다.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Institutes 4.20.14)

다시 말해 칼뱅은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덕법을 주셨고 이는 십계명에 반영되어 있으며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임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칼뱅은 이러한 도덕법은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의를 밝히는 동시에, 각 사람의 불의를 경고하며 정죄하는 기능이다. 둘째, 벌을 받으리라는 공포심을 일으켜 일부 사람들을 억제하는 기능이다. 셋째, 신자들을 훈계하여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칼뱅은 이 중에서 세 번째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Institutes 4.20.6 - 4.20.12)

이 중에서 두 번째의 기능(시민적 기능)은 다른 기능과 달리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인간을 성화시키거나 정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집행을 통해 세속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칼뱅은 하나님의 왕국은 진정한 의의 회복을 하는 데에 관련되어 있는 반면에, 세상의 왕국은 외형적인 부정을 억제하는 데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Institutes 2.7.110; Tuininga 2016: 284)

법의 세 가지 기능(용도)은 각각 신학적 기능, 정치적 기능, 교육적 기능으로 불리기도 한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학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을 주로 강조하였는데, 칼뱅은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루터와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법의 세 가지 기능은 근대형법에서 형벌의 세 가지 기능이론으로 연결된다.(권호덕 2003)

4. 자연법

칼뱅이 기독교강요에서 자연법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의 주석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다양한 개념들을 언급하고 있다. ‘자연의 법’(lex naturae), ‘자연법’(lex naturalis), ‘자연에 의해 모두에게 심겨진 법’(legem naturaliter omnibus insitam), ‘자연의 소리’(vox naturae), ‘형평의 규칙’(regula aequitatis) 등이 그것이다.(Hesselink 1992: 52) 칼뱅은 하나님께서 자연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자연법은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자연법은 공정과 불공정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양심의 깨달음이며, 사람이 무

지를 구실로 삼지 못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 자신의 증언에 의해 유죄를 증명한다면, 이것은 자연법에 대한 정의로 나쁘지 않을 것이다”(Institutes 2.2.22)

다시 말해 칼뱅은 자연법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도덕적인 기준,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그것이다. 그리고 무지를 구실로 삼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으로부터 칼뱅이 로마서 2:14-15¹²⁾를 토대로 자연법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Haas 1997: 67) 칼뱅은 이러한 자연법이 십계명에 담겨 있다고 보았고 그 핵심에는 형평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5. 형평

칼뱅은 자연법의 핵심으로 ‘형평’의 개념을 들고 있다. 이는 칼뱅이 ‘형평’과 ‘자연’이라는 개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자연적 형평: *aequitas naturalis*)가 많은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칼뱅은 형평은 자연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다. 각국의 헌법에서 형평의 원리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데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McNeill 1946: 181; Haas 1997: 68) 칼뱅은 다음과 같이 형평은 모든 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원리로 보았다.

“형평은 당연한 것이므로 모든 법에서 동일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법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이 동일한 목적이 모든 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헌법은 부분적으로 환경에 지배된다. 따라서 모든 헌법이 형평이라는 목표를 동등하게 추구한다면 그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Institutes 4.20.16)

하스(Haas)는 형평의 개념을 역사적으로 분석해보면 네 가지의 이해가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1) 실정법이 그 일반성으로 인해 흠결이 있을 때 이를 교정하는 것(아리스토텔레스의 *epieikeia*), 2) 자연법(키케로, 세네카, 로마법), 3) 법의 해석원리로서의 정의(로마법), 4) 자비와 관용에 기반한 온화한 법해석(유스티니아누스의 시민법대전) 등이 그것이다. 하스는 칼뱅이 이 중에서 성경의 법을 주해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2), 3), 4)의 의미에서 형평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Haas 1997: 123)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칼뱅이 로마법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칼뱅은 형평개념의 성경적인 근거를 마태복음 7:12¹³⁾에서 찾고 있다. 마태복음 7:12는 소위 황금률(*golden rule*)을 담고 있다. 칼뱅은 이 구절에 대한 주석에서 형평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칼뱅에 의하면 이웃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이 형평이며, 이는 십

12) 로마서 2:14-15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3) 마태복음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계명의 두 번째 돌판의 핵심은 ‘이웃사랑’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칼뱅은 황금률은 우리 자신과 이웃을 구별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았다. 세상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러한 형평의 원리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다.(Comm. Matthew 7:12) 이처럼 칼뱅은 자연법의 핵심원리를 형평에서 찾았고 이는 사랑의 계명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았다.(Haas 1997: 50; VanDrunen 2004: 512)

6. 양심

칼뱅은 자연법의 원천을 ‘양심’에서 찾고 있는데 이는 자연법의 원천을 ‘이성’에서 찾고 있는 아퀴나스와 차이가 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칼뱅의 진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은 본성이 사회적 동물이므로, 타고난 본능에 의하여 사회생활을 육성하며 보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회 생활상의 공정성과 질서에 대하여 보편적인 생각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단체생활은 모두 법에 의하여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 법의 원칙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관해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개인이 한결같이 합의하게 된다. 교사와 입법자가 없어도, 법의 씨앗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Institutes 2.2.13)

위와 같은 칼뱅의 진술에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지적되고 있다. 첫째, 자연법이 ‘자연스럽게’(naturally) 존재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사회성이라는 우연한 사실로부터 자연법의 내용을 추론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칼뱅에 의하면 인간이 사회적이어서 자연법을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법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사회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자연법은 인간의 마음(mind)속에 있는 질서라기보다는, 타락하기는 했지만 인간본성의 일부라는 것이다. 자연법은 이성의 능력에 의해서 명확해지기는 하지만, 인간의 이성이 신성에 참여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Pryor 2006/2007: 248-249)

칼뱅이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 심어진 ‘양심’을 강조한 것은 그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한 것과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할 것인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헤셀링크는 신학자로서의 칼뱅과 인문주의자로서의 칼뱅의 모습이 조화되지 않은 채로 공존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이 두 가지 사이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칼뱅이 세속영역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자유주의적인 낙관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획득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칼뱅이 자연법을 긍정하는 것은 인간의 본래적인 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다.(Hesselink 1992: 17) 칼뱅이 양심을 강조한 것은 어디까지 세속나라의 질서와 관련된 것이지 하나님나라의 구원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칼뱅이 양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반은총(common grace)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칼뱅의 서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 입법가들이 사회질서와 규율을 아주 공정하게 수립한 데 대하여 우리는 그들 위에 진리가 비쳤다는 것을 부정할 것인가?...우리는 깊은 존경심을 가지지 않고는 이런 문제들에 관한 고대인들의 저술을 읽을 수 없는데, 그들의 탁월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경탄하는 것이다...우리는 인간성이 그 진정한 선을 빼앗긴 후에도 주께서는 많은 선물을 인간성에 남겨두셨다는 것을 그들의 예를 보아서 깨달아야 한다.”(Institutes 2.2.15)

위의 서술내용을 보면 칼뱅이 로마법학자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것이 그의 자연법사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칼뱅의 일반은총론이나 형평의 개념을 자연법의 핵심으로 강조한 것은 그가 로마법의 대가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칼뱅의 자연법사상에 대한 평가

1. 인간의 죄성 vs. 자연법사상

앞서 칼뱅의 자연법사상에 대한 대립되는 두 가지 입장을 소개한 바 있다. 이러한 대립되는 입장을 극복하고 제3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반드루넨의 두왕국론(two kingdom doctrine)을 들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칼뱅은 하나님의 왕국과의 세상의 왕국을 구분했고 양자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칼뱅이 자연법의 긍정적인 기능을 언급할 때에는 세상의 왕국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그러한 것이고, 칼뱅이 자연법의 부정적인 기능(인간을 정죄하는 기능)을 언급할 때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그러하다는 것이다.(VanDrunen 2004: 504)

이러한 반드루넨의 견해는 자연법의 적용영역을 분명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세상의 왕국 안에서의 인간의 죄성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볼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칼뱅은 세속정부의 형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철학자들이 논하는 정부의 세 형태에 대해서 그 자체만을 생각한다면, 나는 귀족 정치가 또는 귀족 정치와 민주 정치를 결합한 제도가 다른 형태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다. 귀족 정치 자체가 가장 좋다고 보다는, 항상 공정하며 바른 생각만을 하는 자제력이 강한 왕은 아주 드물기 때문이다. 뛰어난 총명과 지혜로써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아는 임금도 드물다. 그러므로 사람의 결함이나 실패 때문에, 여러 사람이 정권을 운영하는 편이 더욱 안전하고 보다 견딜 만하다...또

나는 자유를 적절한 절제로써 조절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바르게 확립하는 정치 제도가 가장 좋다고 인정하며, 이러한 형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다...참으로 집권자들은 전력을 다하여 어떤 의미에서든지 자유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침범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Institutes 4.20.8)

칼뱅이 세속정부에서 왕정보다는 귀족정 또는 민주정을 지지한 이유는 ‘인간의 죄성’이 왕정에서 보다 쉽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칼뱅은 세상의 나라에서의 법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자연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죄성을 고려한 진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볼 때에는 칼뱅의 인간의 죄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볼 필요가 있다.¹⁴⁾

또한 위 칼뱅의 진술내용을 보면 자유를 보호해야 할 집권자들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권리를 중시하는 칼뱅은 사상은 향후 헌정주의의 정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Hamilton, 2001; Witte, 2007) 그리고 칼뱅은 십계명의 제5계명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단지 부모만이 아니라 세속정부의 권위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Institutes 2.8.35) 그러나 이러한 세속정부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인간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Institutes 4.20.32)

이러한 칼뱅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보면 권리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세속정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아 텍은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절대적 자연법’(absolute Naturrecht)사상이 아닌 ‘상대적 자연법’(relative Naturrecht)사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Bohatec, 1934: 15, 84, 92) 브루너는 이러한 ‘절대적 자연법’ 개념과 ‘상대적 자연법’ 개념의 구분은 트뢴치(Troeltsch)가 도입하였고, 보하텍도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¹⁵⁾ 그러면서 브루너는 기독교적 자연법이 절대적 자연법 요소와 상대적 자연법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구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브루너 2003:139)

그러나 ‘상대적 자연법’과 ‘절대적 자연법’을 구분하고 칼뱅의 자연법사상이 전자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강조하는 칼뱅신학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그의 자연법사상의 특징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아퀴나스 사상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아퀴나스는 신학대전 1권 2장 90번 질문부터 108번 질문사이에서 법의 문제를 다루

14) 칼뱅은 기독교강요 제2권 제3장에서 로마서 3장 등을 토대로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Institutes 2.3.1-2.3.5)

15) 트뢴치는 신적인 질서를 반영한 ‘절대적 자연법’이, 타락한 인간성 안에서 국가와 사회질서라는 ‘상대적 자연법’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하고 있다.(Troeltsch 1992: 343)

고 있다. 아퀴나스는 1) 영구법(*lex aeterna*), 2) 자연법(*lex naturalis*), 3) 인정법(*lex humana*), 4) 신법(*lex divina*)을 구분하고 있다. 그는 우선 법이란 완벽한 공동체를 지배하는 통치자로부터 나오는 실천이성의 기술에 다름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우주를 통치하는 신적인 이성이 영원성을 근거로 영구법의 존재를 긍정한다. 다음으로 로마서 2:14를 근거로 하여 인간은 정당한 행위에 대한 자연적인 경향성이 있고 이를 통해 인간은 영구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면서 이를 자연법으로 이해한다. 이어서 인간의 이성은 특정의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를 인정법으로 부르고 있다. 또한 자연법과 인정법 이외에도 인간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법으로 신법이 존재한다고 이해한다.(*Summa I-II, Q.91 Article 1-4*)

맥닐은 칼뱅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자연법사상과 아퀴나스와 같은 중세의 자연법 사상가들 사이에 뚜렷한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연법사상은 종교개혁자들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이슈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법사상은 종교개혁자들의 정치사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고 본다.(McNeill 1946: 168) 실제로 1) 칼뱅이 구약의 율법을 도덕법, 제사법, 재판법 등으로 구분한 점,¹⁶⁾ 2) 칼뱅이 자연법의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로마서 2:14를 들고 있는 점 등은 아퀴나스 자연법사상과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¹⁷⁾ 그러나 칼뱅의 자연법사상과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차이점이 지적되고 있다.¹⁸⁾

첫째, 법을 실정화하는 것의 중요성이다. 아퀴나스는 인간 타락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법을 독립적인 법의 근원으로 보았으나, 칼뱅은 자연법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시에 새겨준 것이었으나 인간의 타락의 영향으로 그 자체로서는 알 수 없고 타락으로 인하여 희미해진 것을 하나님이 성문법인 십계명을 통하여 명백하게 하여준 것으로 이해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이은선 1993: 22-23; Pryor 2006/2007: 250)

이처럼 ‘성문법’으로서의 십계명을 강조한 것은 칼뱅을 자연법주의자로만 볼 수 없게 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칼뱅이 인간타락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과 매우 긴밀한 연결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연법의 원천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칼뱅은 자연법의 원천을 하나님의 인간에 심어놓은 ‘양심’에서 찾았다는 점에서 이를 인간의 ‘이성’에서 찾은 아퀴나스와 차이점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VanDrunen 2004: 512; Backus 2003: 12)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칼뱅이 말하는 ‘양심’은 ‘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칼뱅이 말한 양심은 자연법 자체가 아니라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양심과 이성은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는 것이다.(Klempa 1990: 11)

16) 아퀴나스도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Summa I-II, Q.99 Art.3*).

17) 자연법사상은 개신교와 가톨릭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유지환, 2015:142), 이는 칼뱅과 아퀴나스 자연법사상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견해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8) 헤셀링크는 맥닐의 견해를 지지하는 견해는 소수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Hesselink 1992: 68),

그러나 칼뱅이 자연법의 원천을 양심에서 찾은 것은 아퀴나스의 자연법이론과 많은 차이를 갖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아퀴나스가 ‘양지(良知)’(synderesis)와 ‘양심’(conscientia)을 구분하고 양지가 실천이성의 제일원리를 인식할 수 있는 자연적인 속성으로서 무오류성의 특징을 갖는다고 보아 인간의 자율성을 매우 강조했는데(Herd 2014: 422; 임경헌 2017: 11), 이는 인간타락을 강조하면서 신중하게 양심을 자연법의 원천으로 이해한 칼뱅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신법과 자연법의 관계이다. 아퀴나스는 자연법과 신법이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칼뱅은 하나의 법이 존재한다고 보았다는 점, 즉 칼뱅에 의하면 신법(도덕법)은 자연법과 동일시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Klempa 1990: 8) 다른 말로 하면 아퀴나스는 신법이 자연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법이 자연법을 완성시켜주는 것으로 본 반면(은혜가 자연을 완성시킨다), 칼뱅은 신법(도덕법)이 자연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았다(은혜가 자연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지적되고 있다.(Garcia-Alonso 2011: 5-6)

칼뱅도 일반은총(common grace)을 언급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아퀴나스와 같이 자연법을 인간이 영원법에 ‘참여’(participatio)¹⁹⁾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Lee 2014: 174) 이처럼 은혜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차이는 칼뱅과 아퀴나스의 서로 다른 인간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자연법과 인정법(세속법)간의 관계이다. 칼뱅은 자연법과 인정법간의 직접적인 연계성을 인정했으나, 아퀴나스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차이점이 지적되고 있다. 아퀴나스는 자연스럽게 인정법으로 연결되는 자연법의 원리(예를 들어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규칙이 살인을 하지 말라는 규칙으로 연결되는 것을 들 수 있다)와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원리들(예를 들어 특정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형벌을 가할 것인지의 문제를 들 수 있다)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나, 칼뱅은 자연법의 근거가 되는 양심과 인정법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Backus 2003: 12-13)

칼뱅도 자연법의 핵심이 형평의 사상이 각국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보면 아퀴나스와 유사한 점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퀴나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연법과 실정법의 보다 강한 연계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보다 통합적인 이론을 펼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V. 칼뱅의 자연법사상이 세속법질서에 주는 함의

1. 자연법사상과 법실증주의의 화해

우선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자연법사상과 법실증주의의 대결의 역사로 발전되어 온 법

19) 이진남 교수는 신학대전의 번역본에서 ‘참여’대신에 ‘분유’(分有) 또는 ‘분여’(分與)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이진남 역 2021: 8-9)

철학사에 있어서 양자가 화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칼뱅은 자연법 개념을 강조하면서도 눈에 보일 수 있게 ‘실정화’된 십계명에서 자연법원리를 찾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십계명은 타락한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법을 온전히 인식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칼뱅의 사상을 좀 더 발전시켜 보면 바람직한 질서를 실정법으로 규율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가능한 귀족정이나 민주정을 왕정에 비해서 칼뱅이 선호했던 점은 세속법의 실정화를 강조하는 이론으로 연결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은 ‘법실증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세속정부의 한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점, 시민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은 오늘날 ‘자연법사상’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세속법질서를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사상 어느 한 쪽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칼뱅의 종합적인 관점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세속법질서에서는 법률의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법률에 대해서 헌법에 의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사상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⁰⁾

보다 구체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법실증주의의 측면에서 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제정한 실정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를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방역을 고려하지 않은 자유로운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공동체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법사상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집합금지명령이 예배의 본질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경우에는 이에 저항하는 것 역시 필요할 수 있는데 이처럼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자연법의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매우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자연법의 핵심개념으로서의 ‘형평’

칼뱅은 자연법의 핵심개념으로 ‘형평’의 개념을 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십계명에 반영된 자연법원리의 핵심은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형평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된다고 보고 있다. 칼뱅은 이러한 형평의 개념을 토대로 세속법(인정법)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세속법질서에서는 형평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19세기까지도 보통법원(court of law)과 형평법원(court of equity)을 구별하고 보통법원에서의 엄격한 법적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형평법원에서 했던 것을 볼 수

20) 김현철, 2017은 실정법에 대한 평가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오늘날 자연법사상이 갖는 중요한 의미로 보고 있다. 이 때의 평가라고 할 때는 위헌법률심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평가를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칼뱅의 자연법사상도 이러한 실정법에 대한 평가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공법질서에서도 형평의 원리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또는 비례원칙), 손실보상분야에 적용되는 공적 부담 앞의 평등의 원리 등이 모두 형평의 원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과 같은 사법질서에서도 공평(형평)의 원리는 계약당사자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법리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속법질서에서의 형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칼뱅에 의하면 이러한 형평은 십계명에서 나타난 ‘사랑’계명의 실천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게 된다. 이러한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오늘날의 세속법질서로 확장시켜서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평’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볼 때에는 이처럼 ‘사랑’(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토대를 둔 ‘형평’의 개념에 충실한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집합금지명령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사랑’의 개념과 연결된다. 1) 감염병의 확산을 막아 공동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하나이고, 2) 신자들의 예배의 자유를 존중하는 측면이 다른 하나이다. 이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집합금지명령이 형평의 개념에 충실한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 1)과 2)는 모순충돌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면적인 집합금지가 아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하에 예배를 허용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칼뱅이 말하는 형평의 개념에 충실한 법집행이 될 것이다.

3. 인간의 죄성에 대한 강조

칼뱅의 자연법사상이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과 대조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토대로 구축된 사상이라는 점이다. 바르트를 비롯한 현대 개신교 신학자들은 자연법사상을 인간의 죄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보아 배척하는 경향이 있는데, 칼뱅의 사상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강조와 자연법사상이 공존하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오늘날 세속법에서도 인간의 죄성, 즉 이기적 속성을 반영한 법리들이 만들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헌정주의에서 강조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리 기본권의 존중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칼뱅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입법학 분야에서는 법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이는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오히려 규범과 현실간의 괴리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인간을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보지 않고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을 가진다. 칼뱅이 법의 세 가지 기능을 설명하면서 외형적 죄의 억제라고 하는 시민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간론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칼뱅의 인간론에 입각하여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볼 수 있다. 교회내의 교인들에게도 인간의 죄성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이는 이웃을 고려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반대로 법집행을 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에게도 권력을 남용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집합제한명령으로 충분한 데에도 정치적인 동기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집행 과정에서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보는 것이 필요하다.

VI. 결론

이상에서 칼뱅의 자연법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칼뱅은 아퀴나스와 달리 인간의 양심에서부터 자연법의 원천을 찾았고 이러한 자연법은 십계명에 핵심적으로 드러났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연법사상의 핵심을 ‘형평’으로 이해하고 이는 십계명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또한 칼뱅은 인간의 죄성을 철저히 강조하면서 자연법사상을 구축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칼뱅의 자연법사상은 오늘날 세속법질서에도 여러 가지 함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 법철학계에서 논의하는 자연법사상과 법실증주의의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실마리를 칼뱅이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칼뱅의 종합적인 시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놓고 많은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칼뱅의 자연법사상이 칼뱅의 제네바시기에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칼뱅의 자연법사상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의 점도 주요한 연구과제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추후의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상진, “토마스 아퀴나스의 실천이성과 자연법”, 법철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4.
- 권호덕, 율법의 세가지 용도와 그 사회적 적용: 영미형법의 세 가지 뼈대, 그리심, 2003.
- 김대인, “마르틴 루터의 법사상에 대한 고찰 - 두 왕국론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제14권 제2호, 2009.
- 김두식, 평화의 얼굴, 교양인, 2007.
- 김병근, “Thomas Aquinas의 중세 자연법사상: Aristotle 철학의 스콜라적 변용”, 한국정치학회보 제29권 제1호, 1995.
- 김상용, “서양에서의 자연법론의 생성, 발전 및 영향에 관한 연구 - 고대에서부터 근세까지”,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51집 제1호, 2012.
- 김재성, “율법과 복음: 칼빈의 “제3용법”과 해석원리“, 신학정론 제22권 제1호, 2004.
- 김정우, “기독교가 서구법의 발전에 끼친 영향에 관한 소고 - 고전후기 시대의 로마법에서 중세 캐논법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숭실대) 제24집, 2010.
- 김철, “칼뱅주의와 법에 대한 사상사: 로저 윌리엄스의 교회와 국가에 대한 분리주의 원칙”, 한국인문사회과학회 엮음, 칼뱅주의 논쟁: 인문사회과학에서, 북코리아, 2010.
- 김철영, “칼빈의 율법관에 드러난 자연법 이해”, 장신논단 제15호, 1999.
- 김현철, “자연주의적 자연법 이론의 가능성”, 법철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7.
- 김희권, “구약성경의 율법들 - 계약법전(출 20:22-23:33), 성결법전(레 17-26장), 그리고 신명기법전(신 12-26장)의 원천: 십계명 -”, 법학논총(숭실대학교) 제19호, 2008.
- 문병호, “칼빈 율법관의 법학적 기원”, 법사학연구 제31호, 2005.
- 박은정, “전환시대의 법철학 - 자연법론의 귀환(?)”, 법철학연구 제20권 제1호, 2017.
- 송시섭, “개신교 자연법 사상의 가능성에 관한 시론”, 서울법학 제26권 제4호, 2019.
- 송시섭,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으로부터의 인정법 도출방법으로서의 ‘결론’(conclusion)과 ‘결정’(determination)”, 일감법학 제48호, 2021.
- 송용원, 칼뱅과 공동선, IVP, 2017.
- 신치재, “존 칼빈의 개혁신학에 나타난 법 이해”, 중앙법학 제13권 제4호, 2011.
- 신치재,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과 정의 사상 - 그의 법사상의 신학적·철학적 기초와 관련하여 -”, 중앙법학 제16집 제3호, 2014.
- 안인섭, “칼빈의 국가론”, 칼빈신학개요 I, 두란노아카데미, 2009.
- 오민용, 존 피니스의 법사상 연구: 혼인과 성의 형이상학과 동성혼 금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8.
- 오성종, “칼빈과 루터의 율법관 비교 - 갈라디아서 주석을 중심으로”, 신학과 교회 제7호, 2017.
- 우병훈, 기독교윤리학, 복있는 사람, 2019.
- 유지황,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에 대한 역사적 재해석: 마틴 루터와 일부 개신교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제20권 제2호, 2015.
- 이국운, “프로테스탄티즘과 입헌주의”, 신앙과 학문 제11권 제2호, 2006.
- 이국운, “프로테스탄트 법학연구의 현황과 전망”, 신학과 사회 제30권 제4호, 2016.
- 이양호, 칼빈 생애와 사상,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이양호, “칼빈의 정치·경제사상”, 신학과 교회 제6호, 2016.
- 이오갑, “칼빈의 국가론”, 칼빈연구 (창간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 이은선, “칼빈의 자연법 사상 연구”, 대신대학 논문집 제13집, 1993.
- 이진남, “자연법과 생명윤리: 토마스주의 자연법윤리의 체계와 원리를 중심으로”, 법한철학 제57집, 2010.
- 임경현,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신데레시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몇 가지 문제들-”, 중세철학 제23호, 2017.
- 임영동, “기독교 자연신학의 가능성과 현실성- 칼빈의 자연이해를 중심으로 -”, 조직신학연구 제32호, 2019.
- 전준봉, “칼뱅의 이중정부론에 비추어 본 한국 교회의 정교분리사상: 자성적 칼빈주의”, 개혁논총 제20호, 2011.
- 조용훈, “칼뱅의 정치사상과 그 사회윤리적 함의에 대한 한 연구”, 장신논단 제38호, 2010.
- 지승원, 법에 있어서의 인간 - E. Wolf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0.
- 진웅희, 현대 개신교법사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3.
- 최윤배, “칼뱅의 국가론”, 장신논단 제25호, 2006.
- 홍기원, “초기 칼비니즘의 정치사상 연구서설 - 신법과 인법, 그리고 최선의 정부형태”, 법사학연구 제36호, 2007.

2.외국문헌

- Aquinas, Thomas, The Summa Theologica, 1265-1273. (Trans. by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Veritatis Splendor Publications, 2012; 이진남 역, 신학대전 28: 법, 바오로딸, 2020)
- Backus, Irena, “Calvin’s Concept of Natural and Roman Law”, Calvin Theological Journal Vol. 38, 2003.
- Berman, Harold J., Law and Revolution II,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 Bohatec, Josef, Calvin und das Recht, Feudingen in Westfalen, 1934.
- Bouwisma, William J.,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이양호 외 역, 칼빈, 나단, 2005)
- Brunner, Emil, Gerechtigkeit: Eine Lehre von den Grundsätzen Der Gesellschaftsordnung, 2002. (전택부 역, 정의와 사회질서, 대한기독교서회, 2003)
- Brunner, Emil & Barth, Karl, Natural Theology: Comprising Nature and Grace by Professor Dr. Emil Brunner and the reply No!, 2002. (김동건 역, 자연신학 에밀 브루너의 자연과 은혜와 칼 바르트의 아니오!, 대한기독교서회, 2021)
- Calvin, John,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Trans. by Henry Beveridge,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Grand Rapids, 2002; 김종흡 외 역, 기독교강요(상, 중, 하), 생명의 말씀사, 1991-1996)
- Couenhoven, Jesse, “Law and Gospel, or the Law of the Gospel?: Karl Barth’s Political Theology Compared with Luther and Calvin”, Journal of Religious Ethics Vol. 30 Issue 2, 2002.
- DeBoer, Michael J., “John Calvin, the Civil Magistrate, Law and the Natural Law: Exploring Calvin’s Understanding”, Liberty University Law Review Vol. 2 Issue 3, 2008.
- Dooyeweerd, Herman, “Calvinism and Natural Law”, in: D.F.M. Strauss ed., Essays in Leg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Series B, Volume 14, Paideia Press, 2013.
- Elliott, Mark W., “Calvin and the Ceremonial Law of Moses”, Reformation & Renaissance Review Vol. 11 No. 3, 2009.
- Garcia-Alonso, Marta, “Biblical Law as the Source of Morality in Calvin”, History of Political

- Thought Vol. 32, 2011.
- George, Robert P., "Natural Law, God, and Human Dignity", George Duke and Robert P. George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Natural Law Jurisprud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Grabill, Stephen J., Theological Foundations for a Reformed Doctrine of Natural Law, Dissertation of the Faculty of Calvin Theological Seminary, 2004.
- Haas, Guenther H., The Concept of Equity in Calvin's Ethics, Parternoster Press, 1997.
- Hamilton, Marci A., "The Calvinist Paradox of Distrust and Hope at the Constitutional Convention", Michael W. McConnell et al, ed., Christian Perspectives on Legal Thought, Yale University Press, 2001. (이일 역, 그리스도와 법, IVP, 2015)
- Herdt, Jennifer A., "Calvin's Legacy for Contemporary Reformed Natural Law",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Vol. 67 No. 4, 2014.
- Hesselink, I. John, Calvin's Concept of Law,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2.
- Klempa, William, "Calvin and Natural Law", in: Timothy George (ed.) John Calvin and the Church: A Prism of Reform,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0.
- Kuyper, Abraham, Lectures on Calvinism, 1898. (김기찬 역, 칼빈주의강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7)
- Lee, Constance Youngwon, "Calvinist Natural Law and the Ultimate Good", The Western Australian Jurist Vol.5, 2014.
- McNeill, John T., "Natural Law in the Teaching of the Reformers", The Journal of Religion Vol. 26, No. 3, 1946.
- McNeill, John T.,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정성구·양낙홍 공역,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 McNeill, John T., "John Calvin on Civil Government", Journal of Presbyterian History Vol. 42, No. 2, 1964.
- Pitkin, Babara, "Calvin's Mosaic Harmony: Biblical Exegesis and Early Modern Legal History", The Sixteenth Century Journal Vol. 41, No. 2, 2010.
- Potter, Mary Lane, "The "Whole Office of the Law"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Journal of Law and Religion Vol. 3 No. 1, 1985.
- Pryor, Scott, "John Calvin's Application of Natural Law", Journal of Law and Religion Vol. 22 No. 1, 2006/2007.
- Strohm, Christoph, Calvinismus und Recht, Tübingen, 2008.
- Tuininga, Matthew J., "'Because of Your Hardness of Heart': Calvin and the Limits of Law",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Vol. 69 No. 3, 2016.
- Troeltsch, Ernst, The Social Teachings of the Christian Churches, Vol. 1, 1931. (Trans. by Oliver Wy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현영학 역, 기독교사회윤리, 한국신학연구소, 2003)
- VanDrunen, David, "The Context of Natural Law: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Two Kingdoms", Journal of Church and State Vol. 46 No. 3, 2004.
- VanDrunen, David, Natural Law and the Two Kingdoms: A Study in the Development of Reformed Social Thought, Eerdmans, 2010. (김남국 역, 자연법과 두 나라, 부흥과 개혁사, 2018)
- VanDrunen, David, "Natural Law for Reformed Theology: A Proposal for Contemporary Reappropriation",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 9, 2015.
- Vos, Pieter, "Breakdown of the Teleological View of Life?: Investigating Law, Telos and Virtue in Calvinistic Ethics", Journal of Reformed Theology Vol. 9, 2015.

Vos, Pieter, "Calvinists Among the Virtues: Reformed Theological Contributions to Contemporary Virtue Ethics", *Studies in Christian Ethics* Vol. 28 No. 2, 2015.

Witte Jr., John, *The Reformation of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정두메 역, 권리와 자유의 역사, IVP, 2015)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코로나시대 기독교사상의 의미: 칼뱅의 자연법사상을 중심으로	발표자	김대인
		논찬자 (소속)	우병훈 (고신대학교)

● 의의

1) 본 연구는 칼뱅의 자연법사상에 대한 연구로서, 칼뱅의 자연법 사상은 인간의 양심에서부터 자연법의 원천을 찾았고, 평형의 원리를 강조하며, 인간의 죄성을 주목하면서도 여전히 자연법사상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본 연구는 국내에 칼뱅의 자연법에 대한 직간접적인 연구가 드문 가운데(이은선 1993, 김철영 1999, 문병호 2005, 송시섭 2019),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3)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상황에 대해 잘 제시하고 있으며(서론의 각주 3, 4번 등), 현대 학계의 견해들을 1차 자료에 의거하여 잘 분별하여 정리하고 있다.

4) 본 연구는 칼뱅의 자연법 사상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할 뿐 아니라, 그것을 현대 한국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고유한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칼뱅 자연법의 “종합적인 관점”을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사상 사이의 균형에 접목시킨 것이 특징이다.

● 질문

1) 칼뱅의 사상을 왜 굳이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과 비교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칼뱅이 아퀴나스의 자연법사상에서 직접 영향을 받거나, 그것을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2) 11쪽, 칼뱅과 아퀴나스의 자연법의 차이를 지적하는 부분에서 “칼뱅은 신법(도덕법)이 자연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았다(은혜가 자연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지적되고 있다.(Garcia-Alonso 2011: 5-6)”라고 인용하며 주장한다. 이 주장이 옳다면 칼뱅의 사상에서 자연법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칼뱅과 아퀴나스 둘 다 신법을 자연법 위에 있는 것으로 보며, 둘 다 신법과 자연법 모두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지만, 자연법이 작동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아퀴나스는 자연적 이성의 기능에 대해서 칼뱅보다 더 신뢰하고 있기에, 자연법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자연법의 순기능적 작동에 대해서도 칼뱅보다 더 긍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3) 감염병예방법의 집합금지과 종교의 자유 사이의 갈등에 대해 어떻게 “종합적인 관점”과 “형평”과 “죄성에 대한 인식”을 다루었는데, 조금 더 구체화 되면 좋을 것 같다.

● 귀한 논문으로 중요한 주제를 시의적절하게 다뤄주신 김대인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